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 기독일보



THURSDAY, November 30, 2017 Vol. 603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WWW.CHDAILY.COM



사랑 한가득, 음식 한가득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가 최근 엘에이 제77지구 경찰서와함께 사우스 LA 지역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나누었다. 한편, 나성교회는 지난 17일부터 한인타운 일대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해 12월 23일까지 계속한다.

#### 남가주 교계에 일할 사람이 없다

####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 모두 수석부회장 공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 주한인목사회에 이어 오렌지카운 티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올 회기 수석부회장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 다. 남가주교협은 수석부회장 출 마자가 아예 없었고 남가주목사회 는 1명이 출마했지만 정관이 규정 하는 자격에 미달됐으며 OC교협 은 공천받은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로써 남가주 교계 주요 단체들의 2018년 사역은 그 시작부터 상당한 에너지를 수석부회장 선출에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선출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단체 모두 수석부회장이차기 회장에 취임하기 때문에 수석부회장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현 회장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차기 회장 선출 여부가불투명해지고 단체가 추진하는 사역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뜻한다.

남가주 교계 단체들에 일꾼이 없

는 현상은 그 원인이 몇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는 대부분의 '일'이 회장과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현직 목회자의 경우'2군데에서 목회하는 것'같은 과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민목회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연합 단체에서 일하는 것은불가능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계 단체가 교회와 목회자의연합체가 아니라 소위 '목회는 없는 정치판'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까지는 여러 중견 목회자들이 교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 한 번씩 회장을 역임한 후,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다. 차세대 목회자들이 연합 단체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는 개교회주의,이민목회의 척박한 현실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남가주 지역

에서 연합 사역이 환영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계 정치에 환멸을 느 낀다는 목회자들조차도 연합의 필 요성에는 공감을 표한다. 이들은 주로 목회자 간의 소그룹 모임, 교 단 내 목회자들의 연합 사역, 지역 교회들 간의 연합 단기선교와 소 규모 연합 행사 등 다양하고 실질 적인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8년 연합 단체들은 수석부회장을 뽑는 것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를 읽으며, 사 역적·구조적인 면에서 철저한 자 기 갱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른바 '보여주기'의 시대는 가고 연합의 열매가 저절로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고서는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 는 더 이상의 구태의연(舊態依然) 이 남가주 교계에 통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미라클 블레싱 기도회 모습

###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

#### 21일 간의 기적, 미라클 블레싱 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가 지난 18일 저녁 기도회를 끝으로 21일간 미라클 블레싱 기도회를 마쳤다. 교회 측은 "매일 600여명, 총 12만 8천여명의 성도들이참석한 '미라클 블레싱 21' 기도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전했다

매일 기도회를 참석했다는 김한 나 집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나의 문제의 해답 을 받는 은혜를 체험했다"면서 "기 도회를 통해 인간의 교만과 자만 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고 말했다. 한 성도는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자녀가 더 기도하 고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심 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 수많은 성도들의 아픈 몸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 받는 간증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오고 있다.

기도회 마지막날 말씀을 전한 신승훈 목사는 눅18:1-8을 본문 으로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을 강조했다. 신 목사는 "신실한 하나 님은 주님의영광교회 새 예배당 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으로 주셨다"면서 "아무리 현실이 캄캄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의 때에 역사하신다"고 말했다. 그 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 시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했 으면 절대 낙망치 말고 인내하자" 고 말했다.

#### 남가주장로협 정기총회 10일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한 철수 장로)가 오는 12월 10일 제42 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한인타운 윌셔와 버질 길 사이에 있는 큰가마돌솥순두부 식 당(302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제11회 사 랑의 찬양제에서 모금한 기금을 탈 북민과 불우이웃, 선교지 등에 전달 하는 수여식도 함께 거행된다. 문의) 949-228-6042









www.ptsa.edu I-20 발행 👢 ಶಖ원 🕮 ಶಖ원 후보

## 아름다운 원로, 믿음직한 후임

#### 웨스트힐교회 김인식, 오명찬 목사 인터뷰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오는 12월 3일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다. 교회 개척 후 33년을 섬기고 은퇴하는 김인식 목사와 그 후임인 오명찬 목사를 만나 봤다.

#### 김인식 목사님의 은퇴 소감을 말씀 해 주신다면?

부족한 사람이 약 33년 동안을 큰 어려움이 없이 목회사역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감사할 일입니다. 장로님들을 위시 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와 섬김 때문이었고 가족들의 헌신과 협력 때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 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역에 대하여 감사할 일은 2004 년부터 북한 해방 및 구원을 위한 KCC 통곡기도운동에 열심히 동참 했던 일과 밸리지역 목회자 중심의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매월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사 부흥을 위한 다민족기도대회에 동 참하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위로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던 일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약 10년 전부터 이스라엘 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와 심정을 깨 닫고 목회자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 이 감사합니다. 작년에 목회자 112 명을 섬겼고 금년에 약 1천 명의 한 국 목회자 부부들을 섬길 수 있었 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성도님들의 집중적인 기도 응답으로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성도님들을 더욱 사 랑으로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는 점 과 밸리의 영혼들에게 좀 더 창조 적 큰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입니다. 그리고 더욱 집중력을 가지 고 미주 한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사 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아쉬움 이 있습니다.

후임인 오명찬 목사님은 하나님 께서 43년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주 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 목사님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 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울러 원로목사의 목회 윤리와 후임목사의 목회 윤리를 서로 잘 지 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성도들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명찬 목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해

#### 주신다면?

저는 1998년 하나님의 선명한 부 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필리핀 마 닐라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4 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빈민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를 하며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 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학교 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던 아이들, 친아버지로부터의 반복적인 성폭 행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 포자기하며 살던 아이들이 저의 부 족한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 고, 상담과 장학금 지급 및 생계 보 조를 통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삶의 소망도 찾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본인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결혼도 하여 행복한 크리스천 가정 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SNS로 저에게 연락을 주며, 고 된 삶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아름 다웠던 지난 기억들을 함께 나누면 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곤 합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욱 깊이 연구하고픈 마음의 소원을 안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스 톤 근교에 위치한 고든-콘웰 신학 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M.Div. in Biblical Studies)와 설교학 석사 (Th.M. in Preaching) 과정을 마치 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연이 어 컨콜디아 신학대학원에서 선교 철학 박사(Ph.D. in Missiology) 과 정을 수료하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과 한 영혼 사랑의 마음 을 제 안에도 간직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면서 성경연구와 동시에,

웰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 (M.A. in Counseling)를 졸업한 고 은영 사모와 함께, 슬하에 1년 1남 의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 습니다.

####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웨스트힐장로교회는, 교단과 교 계에서 존경 받으시는 김인식 목사 님의 리더십 하에 지난 33년간 분 열이나 쪼개짐없이 사랑과 오래참 음으로 하나됨을 굳게 지켜왔고, 1 년 365일 주일까지 올려지는 깊은 새벽기도의 영성을 통해 LA와 밸리 지역과 열방을 품으며, 주님과 신실 히 동행해 온 저력있는 교회라는 느 낌을 받았습니다.

목사임을 자랑하기보다 목사됨 을 드러내기 힘쓰시는 김인식 원로 목사님이 걸어오신 목회의 길을 잘 계승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세속주 의와 배금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 는 오늘날의 어두운 영적 흐름의 때 에, 웨스트힐교회가 세상 속에 살지 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삶의 예 배자, 열방의 선교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번 청빙 과정은 어떠했는지?

작년 12월 청빙위원회를 당회원 4명으로 구성하고 신문과 교단 홈 페이지를 통해 청빙공고를 내고 4 월 30일에 마감했습니다. 청빙위원 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청빙 서류 검토 및 확인과 설교 청취 등으로 수고한 결과 두 사람을 최종 추천하 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담임목사 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토론과 기 도 후 한 분을 선택하고 당회를 통 과하고 공동의회에서 거의 만장일

회자 세미나는 절대적인 호응이 있 었습니다. 후속 세미나에 대한 요청 을 받고 있고 부산, 인도네시아, 몽 골,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도 세미나 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식 목사 부부(앞줄)와 오명찬 목사 부부

특별한 것은 러시아 현지 사역자 들을 위하여 내년 5월에 강의할 것 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 들이 많이 남아 있는 러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 으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 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금 년에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을 맞 이하면서 가졌던 "2017 샬롬 예루 샬라임" 문화 행사는 애쉬켈론, 예 루살렘, 하이파에서 약 6천명의 유 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연 1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감동

들과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효과적 인 사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학교 강의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원하 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후 배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 니다. 이미 집회가 확정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부탁하시는 순서대로 필요한 교회들은 자비량으로 섬겨 보려 합니다.

#### 오명찬 목사님은 앞으로 웨스트힐장 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앞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 데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겠지만, 현재 기도 가운데 담임목사로서 제 마음 속에 있는 각오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것 같 습니다.

첫째, 고된 이민생활에 지치고 상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이 해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는 목회자 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 진리의 말 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때에 따라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 셋째, 선하고 신실한 종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마음깊이 신뢰받고 사 랑받는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감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summitus37@gmail\_com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 치에 가까운 절대적인 다수로 결정 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습니 부, 청년부, 찬양팀 인도, EM 담당 되어 온 교우들의 큰 기쁨이 되었 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 목사 등 다양한 사역으로 현장감을 는 2018년에도 이 사역은 계속되어 습니다. 잃지 않으며 지역 교회를 섬겨 왔 야 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 습니다. 이의 역사적인 벽을 허물고 있는 한 김인식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 계획 그 후 2011년, 주일 출석 성도 국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이스 라엘 회복 즉 말씀의 성취로 지리 3,500명 규모의 뉴저지초대교회 부 녹사로 무임하게 되면서 정년부, 상 적, 민속적 영적 회복이 되어야 수 라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년공동체, 영어공동체, 선교부, 영 사로 추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역 님이 오십니다(마23:39). 이스라엘 성사역부, 가정사역부, 일대일 양육 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파송선교사 회복에 대해 사명을 깨달은 목회자 사합니다. 부, 상담사역부 등을 담당하며 전임 수준의 물질로도 지원하기로 결정 www.saseducation.weebly.com 부목사로 7년간 섬겼고, 한 해에도 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주정부 실무 10년의 노하우 미국과 페루를 여러 차례 오고가며 에 등록하고 주세무국과 연방세무 •BPPE 신규 및 재승인 국의 면세 허락을 받은 킹덤선교회 페루 안데스 신학교 부학장 및 교수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로 선교지 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Kingdom World Mission)를 중심 и<del>ш Paul Kim, Ph. D</del>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Tel: (213)531-7215, (909)993-3028 1.5세로서 뉴욕주립대에서 클래 저는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식 피아노를 전공한 후, 고든-콘 인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목 TAEKWONDO



# 500주년 기념 특별 건강 교회 포럼 주제 발표 : 옥성특 교수(B.C.LA.) 패넬 사회 : 안재염 변호사. 패낼 토론 : 면증기 역사. 곽건용 옥사. 하면 목사 호전베곱시이라

포럼에 참여한 안재엽 변호사, 민종기 목사, 옥성득 교수, 허현 목사, 곽건용 목사

#### 종교개혁의 유산 및 현재적 의미 LA 기윤실. 건강교회 포럼 열어

LA 기윤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건강교회 포럼'을 지난 18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인터네셔널 대 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종 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한인교회 에 주어진 종교개혁의 현재적 의미 와 실천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성득 교수(UCLA 아시아언어문 화학과)가 "종교개혁의 유산 및 현 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안재엽 변호사의 사회로 민종기 목 사(충현선교교회), 곽건용 목사(향 린교회), 허현 목사(마운틴뷰 메노 나잇 교회)가 토론했다.

옥성득 교수는 루터가 일으킨 종 교개혁의 유산을 개인, 교회, 목회, 정치, 경제, 학문 등 6가지 분야로 나 누어 설명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 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을 강조 해 '전적으로 자유인이면서 전적으 로 종인 개인'을 발견한 것을 긍정 적 유산으로 꼽았다. 그러나 가톨릭 과의 불화, 세속적 자유의 촉발 등 은 부정적 유산으로 봤다.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반권위주의와 반전 통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리스도 중 심의 응집력이 교회에 생겨난 것이 긍정적이다. 기독교 출판과 민족 문 화들도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교회 가 교파별로 분열되는 부정적 유산 도 있었다. 목회적 측면에서 종교개 혁은 '만인제사장론을 강조하며 교 회 안에 민주적 정치 제도가 도입되 고 경건한 작은 무리의 중요성을 발 견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정치적 인 면에서는 루터와 본회퍼의 두 왕 국론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 교분리의 미명 아래 국가에 종속된 개신교화 되는 부정적 유산도 있다 고 했다.

이어 각각 신학적 성향이 다른 3 명의 목회자가 옥 교수의 발제에 대 하여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중 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준형 기자

#### 한인신학교 최초 Ph.D. 인가 받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미주 지역 한인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철학 박사(Ph.D.) 과정을 개설하 게 됐다. 미주장신은 지난 11월 16 일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로부터 Ph.D. in Contextual Studies 학위를 인가 받 았다.

미주의 많은 한인 신학교 가운데 정식 인가를 갖춘 상황에서 박사 학 위 인가를 받은 곳도 드물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회학 박사(D.Min.)나 선교학 박사(D.Miss.) 등 전문 학위 를 넘어 철학 박사(Ph.D)나 신학 박 라 기대했다. 사(Th.D.) 등 학술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경우는 미주장신이 최초라 할 수 있다. 미국 주류 신학교 가운데에서 도 한국어로 Ph.D. 과정이 가능한 곳은 미주리 주의 미드웨스턴침례 신학교가 최초이며 유일했었다.

이상명 총장은 "이 과정은 타문화 권 혹은 타지역권의 다양한 현지 상 황에 최적화한 통전적 신학과 선교 를 위한 연구 과정"이라고 설명하 며 "본교가 선교사와 선교지 신학 교, 선교단체와의 공조와 연대, 협 력을 통해 선교적 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귀한 토양을 제공할 것"이

김준형 기자

### 남가주교협 회장에 김재율 목사 유임돼

#### 제48차 정기총회 개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8차 정기총회에서 김재율 현 회장의 유 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재율 회장 은 제46차에서는 회장 직무 대행, 제47차와 48차에서 내리 회장을 하 면서 사실상 3회기 동안 재임하게

11월 20일 오전 11시 나성소망교 회에서 열린 제48차 정기총회는 회 원 29명이 등록한 가운데 시작됐다.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차기 회장 선출이었다. 차기 회장 출마 자 격을 갖춘 김종용 수석부회장이 지 난 9월에 이미 사임했기에 차기 회 장 출마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남가 주교협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을 역 임한 자만이 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남가주교협은 차기 회장 출마 를 위해 단 2개월 만이라도 수석부 회장을 맡을 목회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인물 영입에 실패한 것이다. 김재율 회장은 "총회 직전까지 최선 을 다해 수석부회장을 찾았지만 끝 내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위원회도 10월 11일, 11월 3일, 그 리고 총회 직전인 11월 17일까지 3 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장 후보, 수석부회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회장 후보자는 사임 후 공 석 상태이고, 수석부회장 출마자는

아예 없었다. 회원들은 김종용 목사의 사임 이 유를 총회에 질의했고 김재율 회장 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김종용 목 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중간에 사임해 죄송하다. 현 교협 은 회장과 임원, 그 교회 성도들이 뛰고 있다. 게다가 교협의 이미지도 실추되어 있다. 이런 때 남가주 지 역에서 신망받는 대형교회 목회자 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사임했 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위원회 서기인 백종윤 목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 안은 차기 회장 선임 전까지 현 회장 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것, 현 회 장이 1년간 유임하는 것, 정관에 연 임 규정을 추가하고 회장이 연임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목사에 따르면, 유임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간 더 재임하는 것 한번 회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식 출마해 다른 출 마자와 경쟁하는 상 황이다.

회원들은 김재율 회장의 시한부 임기 연장과 1년간 유임 을 놓고 고민하다 30 분간 정회하기로 했 다. 속회했을 때 회원 은 20명으로 줄어 있 었다. 회원들은 회장 이 1년간 유임하는 안 만을 놓고 가부를 묻 기로 하고 거수로 표 결해 12명이 찬성했 다. 과반수가 넘어서 회장 유임이 결정되 었지만 현 정관이 회

장의 임기를 1년으로만 규정한 상 태에서 한 표결은 무효라는 주장이

이에 총회는 임원의 임기와 선출 에 관해 규정한 정관 14조와 16조에 대한 규칙 일시 정지를 16명의 찬성 으로 가결하고 김재율 회장의 유임 안을 다시 표결했다. 이번에는 20명 중 13명이 찬성했다.

회장 유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던 김종용 목 사가 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주 자는 의견을 김영구 목사(현 남가주 목사회장)가 냈지만, 김재율 회장은 "우리 총회는 공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 플로어에서 출마해 표결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구 목사가 그 이유를 질의하자 김 회장 은 "이단이나 일부 교회가 사람을 동원해 회장을 하려는 시도를 차단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영 구 목사가 "김종용 회장은 이미 수 석부회장을 역임했으니 그런 위험 이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회장 은 "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김종용 목사가 향후 정식으로 서 류를 접수하고 출마한다면, 가능하 다"고 덧붙였다.

남가주교협의 수석부회장 공석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 정 확히 말하면 출마자 자체가 없어서 공석이 된 경우다. 2013년 박효우 회 장의 제44회기는 수석부회장 없이 시작됐다. 그리고 제45차 총회 한 달



김재율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이 됐지만, 여전히 이때도 수석부 회장은 없었다. 최 회장은 8개월 뒤 에야 강신권 목사를 수석부회장으 로 영입하는 데에 성공했다. 제46 회기는 '강신권 회장-김재율 수석 부회장'으로 순조롭게 시작하나 했 지만, 강 목사가 공천위원회를 통과 하지 못하면서 남가주교협은 또 다 른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강 목 사는 임시총회를 거쳐 5개월 만에 회장에 올랐지만 이후 강신권 회장 과 김재율 수석부회장의 갈등이 빚 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제47회기에 서는 김종용 목사가 돌연 사임하며 또 다시 수석부회장 공석 사태를 맞 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종용 목사의 일방 적 사임과 그 사임을 수리한 교협 이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다. 총 회에서 김종용 목사는 "죄송하다" 고만 했지만, 다수의 교계 소식통들 은 "김종용 목사는 오렌지카운티 지 역의 한 목회자가 수석부회장을 맡 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사임했다"고 전하고 있다. 왜 그가 갑자기 마음 을 바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 만 이 소식통들은 "현재 남가주교 협의 위상과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 문이거나 오렌지카운티교협의 반대 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 다. 실제로 과거 오렌지카운티 지역 에서 목회하는 최순길 목사가 남가 주교협 회장이 됐을 당시 오렌지카 운티교협 회원들은 2016년 11월 제 이고, 연임의 경우는 현 회장이 다시 전에 최혁 목사가 수석부회장이 됐 26차 정기총회에서 상당한 불편함 다. 한 달 뒤 최 목사는 제45회기 회 을 표한 적이 있다. 김준형 기자







FIRE CRUSADE

## ·년제자훈련 프로그램 1기 모집

#### 1. 목적

- 1) 청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과 말씀의 기초를 확실히 소개한다.
- 2) 청년들을 치유한다. 성령의 충만과 회복
- 3)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운다. 제자의 삶

#### 2. 훈련

매주마다 이뤄지는 훈련을 통해 받는 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임재 가운데 나아갈 과제를 나눈다.

- 🕯 \* 첫 주 강의가 끝나면서 말씀 생활에 관해서 나눈다.
- QT 노트장 or 묵상노트 과제 (매주 2~3차례 작성하기)
- \* 추천 도서 필독하기 (이 중 1 $\sim$ 2권을 전체 프로그램 전에 마친 후 독후감 쓰기)
- 래디컬 / Radical David Platt
- 그리스도의 십자가 / The Cross of Christ John Stott
-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Wealth Riches & Money Craig Hill and Earl Pitts
- 성령님을 만나세요 / Meet the Holy Spirit Jack Hyles -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 What so amazing about grace? Philip Yancey
- \* 전도/봉사 훈련
- 함께 하는 모든 청년들과 노방전도나 봉사 나가기 (공원, 바닷가, homeless, 양로원)
- 전도와 단기 선교 체험
- \* 진행 방식 :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한다. 주어진 기간 가운데 출석률 과제 completion을 통해서 수료하도록 한다.

문의: Office(714)749-7770, 한국어(213)210-9700 마크 윤 간사, 영어(562)922-1823 Paul Cho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joonworship@gmail.com, facebook.com/firecrusade

#### **훈련내용** (총 5개월) 1. 자신을 알기 2. 이성 교제와 결혼 3. 하나님에 대해 알기 4. 말씀의 삶 5. 기도의 삶 6. 예배자의 삶 7. 제자의 삶 8. 세상에 대한 이해 9.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3〉

## 터키 안디옥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를 다녀와서 (2)

지난 주 칼럼을 보고 한 분이 내게 전화를 했다. 이슬람 땅에 서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를 물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 곳에 가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물론 가능하다. 필자는 실크웨 이브미션 미주 운영이사로 섬기 고 있다. 지난 10년간 실크웨이 브미션은 터키의 연합중보기도 회와 시리아 난민 구호사역 그리 고 교회 개척사역을 지원하였다.

그간 터키 현장 선교사들과 현 지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다민 족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다. 터키 현장 선교사 들 중에 우리와 협력하였던 십여 명의 선교사들이 PIT(Partners in Turkey)를 구성하고 실크웨 이브미션과 앞으로의 사역도 협 력하기로 했다.

그 PIT 선교사들 중 시리아인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이 번 수양회를 주선하였다. 터키 전 역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교 회 지도자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실크 웨이브미션에 그들을 훈련할 강 사를 요청했다.

그래서 필자와 대표인 김진영 선교사, 그리고 피터 김 목사 등 이 갔다.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교 회 개척을 희망하는 지도자들을 면담하며 실크웨이브미션은 교 회 개척지원을 할 지도자들 20 여명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구 체적으로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이상훈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를 기도하기로 하였다.

실크웨이브미션은 미주운영 이사 10명 그리고 한국 운영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1 월에 한국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미 연합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데 거기서 교회 개척지원에 대한 결의가 있을 것이다.

PIT 현지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겠다. 그들은 장기 선교사로 각자의 사역지에서 탄탄한 사역 기반을 갖춘 사역자들이다. 이번 에 안디옥개신교회당에서 수양 회를 하였는데 그 교회를 이끌 고 있는 분이 PIT의 회원인 한 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인 J 선교 사이다.

그 교회 안에는 이미 터키인 들의 예배가 세워져 있고, 시리 아 난민들이 예배당을 찾아와 자 기들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할 때 흔쾌히 교회의 문을 열 어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였다. 지금은 이미 안정된 난민교회 사 역을 하고 있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 대표전화: (213) 739 - 0403 / E-mail: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OC교협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교계와 어려운 목회자 섬기는 OC교협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이서 목사 회장 인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OC교협) 제27차 정기총회에 서 이서 목사(미주비젼교회)가 신 임회장으로 인준 받았다. 수석부회 장은 공천됐던 후보자가 총회에서 사의를 밝힘에 따라 공석이 됐다.

전임회장 이호우 목사는 "취임 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자가 하나 님의 은혜와 많은 선후배 목회자들 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임회장 이 서 목사는 "전도의 꿈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았다"면서 "교계와 어려 운 목회자를 잘 섬겨서 좋은 영향 력을 미치는 OC교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은혜

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OC교협 이사회는 이사장 에 민승기 목사, 총무이사에 이호우 목사, 이사에 정영수, 윤성원, 양문 국, 박학선, 신원규, 박용덕, 엄영민, 한기홍, 이봉하, 양금호 목사를 각 각 인준했다.

이사회는 또 박재만 기획 부회장, 조형수 영성 부회장, 이창남 선교 부회장, 박용일 신학 부회장, 이태 종 교육 부회장을 공천했고 회원들 은 이를 모두 인준했다.

총회 앞서 열린 예배는 박재만 목 사의 인도로 시작돼 최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아리랑합창단(지휘 줄리 김), 이은수 목사의 특별찬양 후 박 용덕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가 계 22:12-13을 본문으로 '알파와 오 메가'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상철 목사(OC교협 부회장)의 광고 후 정 영수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의 축 도로 마쳤다.

이어 내빈 소개와 환영 인사 시간 에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 전준홍 장로(OC교협 후원 이사장) 가 환영사를 전했고, 부에나팍 시의 원 후보인 박영선 변호사, 남가주한 인목사회 전 회장 김영구 목사가 인 사를 전했다. 이어 부회장으로 섬겼 던 신현철 목사에게 이호우 목사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편, OC교협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미주비젼교회 본당에서 신임회장단 취임식을 갖는다.



#### 남가주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샘 신 신임회장 인준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1차 정기 목사의 공천을 부결한 이유는 정 에게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임무 석한 가운데 오직예수선교교회에 서 개최돼 수석부회장 샘 신 목사 가 신임회장으로 인준받았다. 남가 주목사회는 수석부회장이 공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차기 회장직 을 승계하게 된다.

남가주교협과 마찬가지로 남가 주목사회도 이번 회기 수석부회장 을 뽑지 못했다. 남가주목사회 수석 부회장 선거에는 데이빗 리 목사 혼 자 출마했지만 공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지 못했다. 공천위원회가 리

총회가 11월 27일 회원 17명이 참 관 8조 1항 중 회장의 자격 요건으 로 '회장 출마 시까지 3년 이상 담 임 목회를 하는 자'라는 조건 때문 이었다.

> 일부 회원들은 "현 정관이 규정한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교계를 위해 일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회원 들의 동의 아래 공천위원회가 데이 빗 리 목사를 수석부회장 후보로 공 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가부를 묻는 투표 결과 7대 6으로 부결됐다.

회원들은 신임회장과 새 임원진

를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신임원진 들은 수석부회장 후보자를 찾아낸 후 공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접수하 게 하고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쳐 수석부회장 후보를 뽑 게 된다.

이번 회기에 수석부회장 출마자 가 데이빗 리 목사 외에 없었던 것 을 감안하면, 전례상,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열기보다는 공천 위원회만 통과된다면 수석부회장 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준형 기자

## 샌퍼난도 밸리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10일 성탄절 연합 찬양축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연락처: 회장: 문일명목사 (818) 357-6357 총무: 김선일목사 (805) 200-8100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밸리 교역자 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0:30 장소: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목사 시무) (818) 832-6628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장학금 신청요령 1) 선발 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 / 신학대학원 재학생 2) 자격조건: 샌퍼난도 밸리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샌퍼난도 밸리지역에 위치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써 생활 형편상 학자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 3) 제출 서류:

A.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통 B. 성적증명서 1통 (대학1학년일경우 12학년 성적표 제출) C. 자기소개서 1통 D. 비 기독교인 신청자는 밸리거주 증명(부모님 주소도 가능)과 B 와 C 그리고 교수추천서 1통 4) 제출기한: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도착 5) 제출처: 나성평화교회 (Korean Peace Church of LA)

(Attn: Pastor O.S. Seo) 14683 Fox St. Mission Hills, CA 91345

공지사항 본 협의회 장학생 선발 사업 취지에 동참하여 장학금을 제공 하시는 분들과 교회는 개인(또는 교회나 단체)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는 KMA입니다.)



5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남 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두 발목을 잡 고 거꾸로 세워 엉덩이를 두들겨서라도 울 려서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을 고고 의 성(呱呱의 聲. Cry at its birth)이라고 합 니다. 한문으로는 죄많고 위험하고 거칠고 힘든 세상에 어찌살고! 하고 우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살아보면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근심, 걱정, 시험, 환란이 끊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 1.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기뻐하라는 전제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 도하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왜 그 기쁨이 있는가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 다. 고통이 있으면 왜 고통이 있는지 그 이 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원 인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깨닫기 위해 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를 건성으로 하면 하나님 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 이 있는 영적 교감의 기도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로 이 어지며 영감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며 또 내 사정을 직고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 로 내게 유익한 교훈을 얻도록 해 주십니 다. 신앙인이 차를 타거나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하가나,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할 것 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은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 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으며 기도도 하지 않고 막연한 종교 의식으로만,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 로 인정하고, 보살펴 주시리라 믿어 버립니 다. 결국 미신적 기대감은 매우 엄청난 절망 을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기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께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전화위복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관계가 온전히 연합될 것이며 내 입장이 예수님 입장으로 살고 있는한 예수님이 내 입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는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내 입장만 주장하며 항상 예수님께 실망만 안겨 드려서 말씀에 거역하고 어긋나게살며 내 입장만 억울한 것처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잘 정립된 건강한 신

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하 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 한 것입니다.

#### 2. 소록도에서 만난 예수님

'소록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전도용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 다. 명륜동의 유교적 전통의 가문에서 유 교의식의 양반으로 자라다가 서울대 법대 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검사가 되어 돈을 많 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떵떵거리며 자기생각대로 행동하고 똑똑하게 사는 사 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 처럼 살았고 그는 고검장의 자리까지 올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엉덩이 있 는 쪽 넓적다리 부분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약을 바르고 치 료를 했는데 점점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고대 병원에 갔더니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 같은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저기서 부풀어서 썩어 들어가며 몸에 서는 송장 썩는 악취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검장도 사표를 내고 멀리 강 원도에 있는 친척 집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 는데 친척도 거절합니다. 1년 8개월 뒤 할 수 없이 시립병원을 통하여 소록도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자신보다 더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더욱 더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디기 어려워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으나 파도물이 밀어내 죽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마디가 부르며 떨어져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밥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날 마음이 비로소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험악하게 된 환자들이 다가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을 보면서 처음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위로받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보다는 말도 잘못 하는 설교이지만 시간마다 전해지는 목사 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날부터 가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울 렁거리다 통곡이 터지고 손으로 마룻바닥 을 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지내기를 6 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아주 겸 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 니다. 육신은 세상에서 망가졌지만 남은 영 혼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영적 가 치가 천하보다 귀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 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을 귀 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내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삶의 의욕이 복받치 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썩어 들 어가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날부터 자기보다 더 약하고 더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서 손발노릇을 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겉 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전도사처럼, 천 사처럼 내세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나병에 걸리 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할 때 소스라치게 떨리는 마음을 느끼며 영적 소 망의 확신과 믿어지는 믿음이 이 인생을 바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록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삶을 전도용 책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 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근심, 부담을 원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 자는 기도하며 잘 활용하여 오히려 전화위 복의 기회로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 니다. 잘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 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 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과정에서 일 어나는 어떤 고통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 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이 책임 지십 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 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로 두려워 말고 낙심도 말고 오히려 기뻐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해결 받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 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며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보여주시는지를 확 인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 말 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 음으로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언 제나 그리스도와 의논하는 여러분이 되시 기 바랍니다.

내가 죄값으로 받는 고통이라면 회개하여 벗어나야 할 것이며 말씀에 이끌려 성령께 쓰임 받는다면 환란이나 고통을 통하여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차례 능력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당하는 것보다 당하는 것을 통하여훨씬 더 유익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못이 없는데 원수 마귀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 말고, 주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즉시 전화위복이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얼마나 나를 향해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문제를 통하여하나님의 능력이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으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전 국 전 보 글 보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의	2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 2 2 17 0 0 0 2 110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년			2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오후6시/동부오후9시					AM1190		90	월요일 오후 5시 /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음방송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	10	화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기독일보				蒀교	기쁜소리방송		방송	7시30분	2시30분	
	인터넷신	<u>l</u> 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문의 | 동부교협총무/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목사 714-315-4455 또는 유니온교회 교역자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 당뇨환자, 반트시 아연섭취해야!



0-Z G0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43%(하지절단) 당화혈색소를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1%만 줄여도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항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의: 949-864-9162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서교교호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찬양예배 오후 3:30

린문교회

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olympic-church.org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수요예배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00

2브에베 오저 10:30

3281 W. 6th St., LA, CA 9002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유초등부 오후 12:30

**D**O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장태원 담임목사

**강진웅** 담임목사

**진유철** 담임목사

**박헌성** 단인모사

세벽기도회: 오전5:30(월-금) **강양규** 담임목사 세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신승훈**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강지원 담임목사

언약교호

중기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만남의교회가 이웃들을 초청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 오감에 영감이 더해진 추수감사예배

19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이웃들을 초청 해 추수감사특별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 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오감(感)축제로 이어졌다.

이정현 목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을 만나는 것"이라며 "오감(感)예배는 수 동적 예배가 아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感)에 영감을 더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동 적 예배"라고 말했다. 예배를 연출한 구승 철 장로는 "오감을 통해 예배에 참여해 말 씀 전달자가 되는 역동적인 예배 연출에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예배는 조지민 양의 바이올린 솔로 연 주로 시작됐다. 어린이 주일학교 팀이 〈Give Thanks ,나는 구원열차〉를 찬양하 면서 입장 후, 유스그룹과 EM, 찬양대로 구성된 연합찬양의 웅장한 찬양이 이어 졌다. 임근남 장로의 기도 후에 이정현 목

만남의교회(이정현 담임목사)가 지난 사가 스킷드라마를 준비한 팀들과 함께 ▲고난도 감사하라 ▲모자람도 감사하라 ▲감사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 했다. 예배는 뮤지컬을 보는 듯 청중들을 압도했고 감사의 주제와 은혜를 전달하 기에 충분했다.

> 봉헌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일 터에서 사용했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 는 진기한 모습도 연출됐다. '만남의 대행 진' 시상식에서는 1년간 전도와 성경통 독, 필사 등을 종합해서 구역별로 시상식 을 가졌다. 이어진 성찬의 순서에서는 사 랑의 떡을 나눴다. 2부 순서로 이어진 '오 감축제'는 구승철 장로의 사회로 성도들 이 정성스레 마련한 풍성한 음식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에 속한 만 남의교회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밸리교 회와 만남의교회가 통합을 이루며 건강 하게 성장하고 있다.



은혜로 남녀중창단이 찬양 콘서트를 열었다.

### 은혜로 남녀중창단 가을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다. 은혜로 남녀중창단(지휘자 이병민, 박 주자 박선영)은 창단 1년이 채 안됐지만 수준 높은 공연으로 청중들의 뜨거운 환 호를 받으며 감동을 선사했다.

김경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 데 휼륭한 지휘자를 보내주셔서 성도들 이 바쁜 시간을 쪼개 서로를 격려하며 최 고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면서 "연습하면 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을 이웃들 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 했다.

오석환 장로는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은혜로교회(김경환 목사) 남녀중창단 까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연습 과정 중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 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 이날 콘서트는 송지영 집사의 개회기도 로 여성중창팀이 〈매일 주만 섬기리라〉 〈날마다〉〈하나님의 나팔소리〉〈주의반 석〉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다. 남성중창 팀은 〈내 진정 사모하는〉 〈십자가는 주의 능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태산을 넘 어 험곡에 가도〉 〈기뻐하라〉 등을 합창했 다. 마지막곡으로 혼성 중창팀이 〈주의 기 도〉 〈승전가〉를 부르며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모든 행사는 김경 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새언약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이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 새언약학교 특별한 추수감사예배

올해로 개교 19주년을 맞이한 새언약 다. 초중고등학교(NCA)가 올해도 특별한 추 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다. 17일 학교 강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에는 350여 명의 재학생과 학부 모, 친지들이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킨더부터 12학년 전 학생 이 모금에 참여해 26명의 염소를 모아서 월드비전을 통해 기부하고, 다운타운 홈 리스 사역단체인 World Harvest Food Bnak를 통해서 3,013개의 캔을 전달했

이날 페스티벌은 제임스 송 교장의 메 시지 이후 4학년부터 12학년의 핸드벨 공 연, 킨더-3학년의 퍼포먼스, NCA 치어팀 의 바디워십,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등 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후에는 학부모 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훈 훈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NCA는 현재 캠퍼스에서 캠퍼스 확장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주잌예배 오저 11: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 2부 오전 11:00

수요큐티모인 : 저녁 7:00

#### LA 지역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저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기섭** 담임목사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질중학교 / 토요새벽-1가와 버몬트 코너 사랑의교호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del>| 눔</del>과 섬김의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토 오전10:00 ~오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서건오** 담임목사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주일예배 오전 10:45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류종길**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금요예배 오후 8시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이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유교호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음제자교**회 하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의2부에배 오저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현선교교호

1부예배 오저 8:00 금요차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하우리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호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팜스프링스지역,라스베가스,사우스베이,토렌스

이희철 담임목사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준식** 담임목사

**신용환** 담임목사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역합교호

수요찬양성령진회 오후 8:00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성하미교호

11/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정상용 담임목사

**서보천** 담임목사

윤 목 담임목사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저 11:45 오전 6:00 (토)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Г. (626) 810-3455 / F. (626) 964-5559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 오전 7: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임래드교호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1부예배 오전 8:00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 오전 11:00

T.(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렠루야하이교호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1부예배 오전 8:0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 오저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강신권** 담임목사

성금란교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이상훈 담임목사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젼교호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주일1부 오전 8:00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오전 11:00

T.(310)715-9902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하이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과 호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중고등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r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랑의빛선교교호

말씀위에 굳게 서리리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진회 오후 8:00 내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최 혁 담임목사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 .아에교호 In Christ Com T. (818) 363-5887 / www.l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선교호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r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기 호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장애인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인교호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아름다운교회에서 선교사 위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열렸다.

#### 선교사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주최해 가족과 친지들과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못 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 교사 위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올해로 22 번째를 맞았다.

추수감사절 당일 23일 오전 10시 30분 아름다운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 에는 40여 명의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초대됐다. 아름다운교 회는 미국의 전통 추수감사절 음식과 한 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선교사와 자 녀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마련했다. 선 교사 부부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담아 선 물로 증정했고, 선교사들은 오랜만에 동 역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서 로 나누었다.

고승희 담임목사는 "음식과 전체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팀만 4-50명이 넘는다"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납하고 기쁨으로 자원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

인도에서 사역하는 북인도선교회 이 윤석 선교사는 이 행사에 참석한 후 "많 은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는 데 격려와 도전이 많이 되었다"면서 "20 년 이상을 이런 귀한 행사를 통해 섬겨주 시는 교회와 고승희 목사님께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안건상 목사(풀러신학교 교수)의 인도로 소진욱 집사의 기도, 남성 중창단의 〈축복하노라〉 특송 후에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가 히11장 32-40 절을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숙진 네팔 선교사(SIM선교회)의 간증과 고승희 목 사의 광고 후에 이반석 목사(모퉁이돌선 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와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언론인들에게 행사 결과를 보고하고 언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다민족 기도회 언론인 평가 간담회 열려

지난 10월 29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17년 다민족 기도회를 평 가하는 언론인 간담회가 11월 17일 LA 한인타운 내의 한 중식당에서 있었다. 당 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한인,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라티노, 흑인, 백인 등 다양한 인종 1,500여 명이 참석해 기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이번 기 도회에 여러 다민족이 참여해 회개, 부흥 과 회복, 미국과 국가 지도자, 차세대와 선 교, 어려움 속에 있는 도시와 나라 등 5가 지 주제 아래 뜨겁게 기도했다는 데에 일 단 큰 의미를 두었다. 특히 이번 집회에 라티노 교회 중 하나인 엘림교회와 유대 인, 이집트계 중동인들의 참여도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2016년과 2015년 애나하임 컨 벤션 센터에서 각각 1,500명, 3500명, 2014년 버라이즌 야외극장에서 5,000명 이상이 참석했던 집회와 비교하면 점점 참석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인들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원은 물론, 남가주 지역 중소형 교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연합 행사나 기도회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 교계 분위기를 주원 인으로 꼽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여러 교 회를 동원하기 위해 수십 명의 목회자를 기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 긍정적인 측 면도 있지만, 기도회를 '행사'로만 보이게 하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오히려 기도에 만 초점을 맞추어 수 시간 동안 다른 순서 없이 기도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이번 행사가 종교개혁과 관련된 기 도회인데 기도 내용은 그 초점에서 벗어 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개혁 당 시처럼 현 교회의 회개나 개혁 문제보다 는 그동안 한인교회가 주최해 온 국가기

도의 날이나 다민족 기도회와 행사 포맷 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사 초반 부에 발표된 참회실천선언문은 여타 지 역이나 행사에서 발표된 것과는 달리 매 우 실천적이며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칭찬이 많았다.

준비위원장으로 섬긴 강순영 목사 (JAMA 대표)는 "다민족들과 함께 기독교 종주국인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해 마다 연합기도회를 열 수 있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기도 회에 모인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이 땅 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는 하 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고 전했다.

주최 측이 이날 공개한 결산 보고에 따 르면, 총 행사 수입은 3만 7,445달러였다. 은혜한인교회가 5,000달러를 헌금했으며 기도 인도자와 교회들이 총 1만 3,200달 러를 헌금했다. 행사 책자에 게재된 광고 로 9,600달러를 모았고 기도회 중 헌금 시 간에 9,645달러가 모금됐다.

지출은 3만 7,742달러로 수입 대비 297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대관료가 들지 않은 덕이었다. 그동안 다민족 기도 회는 로즈볼, 버라이즌 야외극장, 애나하 임 컨벤션 센터 등을 대관해 열어 왔다. 주최 측은 개 교회에서 행사를 열 시, 작 은 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 려를 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한인교회인 은혜한인교회가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 면서 십수 만 달러의 대관료를 절감하게 됐다.

현재 행사 책자 광고비 미수금이 1만 1,000달러가 있는 상황이라서 주최 측이 이 금액의 일부만 잘 회수해도 이번 행사 는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주최 측은 이 돈으로 지난 대회 적자 금액을 지 불하고, 모럴 아웃 크라이(대표 앨런 파커 변호사)가 진행 중인 낙태 반대 운동에 기 부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12:2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11/ Q

이 서 담임목사

권혁빈 담당목사

**우대권**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입당과 담임 위임, 임직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겹경사

남가주 새소망교회(김성원 목사)에 경 사가 겹쳤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새 성전을 허락하셨고, 김성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고,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 이 세워졌다. 26일 오후 4시 새 성전 본당 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입당식, 3부 담임목사 위임식, 4부 임직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성원 목사의 인도로 정상 엽 장로의 기도 후 김동호 목사(높은뜻 연 합선교회 대표)가 딤전 3:1-7을 본문으로 "좋은 목사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남가주 새소망교회라 는 구원의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담 임목사는 선주이다. 성도들은 선주가 잘 운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고 맡기라" 고 말했다. 이어 "세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 을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 회,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덧붙였다.

2부 입당식에서 전광일 장로가 경과보 고를, 최계순 권사가 축사를 전했다. 전 장 로는 "입당까지의 일은 다른 어떤 말로 설 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

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도와 헌신으 로 동역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 했다. 최 권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서 "예배와 성령,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목사 위임식에서 권면을 전한 최대 준 목사(자양교회 원로목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대언되는 귀한 목회자 와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김성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 종해 따라가고 싶은 귀한 성도들을 만난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성원 담임목사의 인도 로 김영덕, 유경현, 최공진 씨가 장로로, 박 은성, 이광희, 이동희, 조현대 씨가 안수집 사로, 박정혜, 서미애, 유애란, 정수경 씨가 각각 권사로 임직했다. 임직자 대표로 인 사를 전한 김영덕 장로는 "부족한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늘성령 충만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 라"고 전했다. CTS 여성합창단의 축하 후 최대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200개 슬리핑 백에 사랑 담아

춘준 목사)와 사랑나눔선교회가 샌버나 디노공원에서 소외된 이웃과 노숙자, 어 린이들에게 200개의 슬리핑 백과 음식, 커 피를 나눴다.

올해로 19년째 노숙자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춘준 목사는 "한 노숙자 가 올 겨울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주님의

지난 25일 오전 9시에 창대장로교회(이 사랑을 고백했다"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 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목사는 "크리스마스가 오 기 전에 사랑의 점퍼를 한번 더 나눌 예정 이다"라며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부탁한 다"고 말했다.

문의) 951-966-9191



나성한미교회 주최 러브 엘몬테 행사가 열렸다.

#### 26년째 이웃 섬기는 러브 엘몬테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가 엘 몬테 지역 히스패닉 주민들을 초청해 Thanksgiving과 문화나눔축제를 통해 하 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인 "러브 엘몬 테(Love El monte)"가 26회째를 맞았다.

지난 18일(토) 아침 9시가 되자 히스패 닉 이웃들이 삼삼오오 나성한미교회 예 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회 한쪽 에 설치된 놀이시설에는 히스패닉 아이 들의 놀이터가 마련됐고, 교회 주차장 한

편에선 라티노 복음성가가 울려 퍼졌다. 나성한미교회 성도들과 같은 교회 예 배당을 공유하는 아구아 비바교회 교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약 500여 명의 주 민들에게 점심과 선물을 나눴다. 정성껏 요리한 치킨도 150가정에 175마리가 제

신용환 담임목사는 "벌써 26년째 이웃 과 함께 하는 '러브 엘몬테'를 통해서 선 교적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심을 깨 달았다"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와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몬테 지역은 한인보다는 히스 패닉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날 엘몬테 시의원은 26년간 이웃주민을 위한 섬김 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주일 1부예배 8: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amil.co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하글학교 오후 6:00 (금)

ス入日り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562) 524-2037 kpcadavid@yahoo.com

**박재만**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7200 Jamhoree Rd Irvine CA 92614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T.(213) 291-5901/(714) 833-2568 daekwon.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리교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투유 예배: 우후 8: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30

2부에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금요 Alpha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45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인영어예배 2전 9:15, 2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저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델하이교호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얼바인 침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저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info@Potterscc.com

**임경남** 담임목사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Sunday Services: 11:30 AM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Church of OC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HENRY LEE

PASTOR JAMES KWAK

PASTOR RONNIE PARK

**주혁로** 담임목사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HAROLD KI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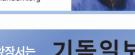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 기독일보, FH미션

####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믿음의 상상력에 감사합니다

"감사"(thank)라는 단어는 "생 각"(think)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 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여 보면 감 사가 넘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 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 면, 스승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 며,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 조업자, 곡식과 과일을 생산하는 농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뿐 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칩니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 가 넘치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 질 일들을 생각하여도 감사가 넘칩 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찬송 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 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 명으로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고 합니다. 이는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적 상상력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지만, 천국의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확실히 믿 었고,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믿음 의 자녀들이 생기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즘 북한 귀순병 이야기로 한국

신문이 난리입니다. 지난 13일 공

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하다

가 폐와 복부에 총상을 입고 무의

식 속에 있던 북한 병사가 구사일

생으로 의식을 찾아 회복하고 있다

고 합니다.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

가 집도하면서 몸의 기생충을 제

거하는 이야기이며, 귀순병의 위장

속에 옥수수 몇 알만 있는 것을 보

면 그래도 최고 대우를 받는 공동

경비구역 북한 군인인데, 현재 북

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 이

야기, 환자 상태를 브리핑한 내용

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문

제로 정치권까지 번져가는 수많은

입소문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순병이 의식을 회복

하자마자, 처음으로 꺼낸 말이 "남

한 노래가 듣고 싶다"였다고 합니

다. 한류의 영향력이 북한군에게

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북한

전역을 한국드라마와 노래가 휩쓸

고 있고, 보다가 들키면 처형이라

고 하는데도 드라마를 '목숨 걸고'

본다고 하니, 한류가 단순한 흐름

(wave)이 아니라, 강도7의 허리케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

인 이상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민종기목사 충현선교교회

는 그의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3남 3 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 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 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 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 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 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 다. 여섯째, 미국 유학가려고 준비 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 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

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 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 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 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 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 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복락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상의 죄악을 모두 정리할 것을 생 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 도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 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 는 우리의 완벽한 거처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죄가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가득 채워지 는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 믿고 감 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상상력에 는 세금도 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 소프트 파워



김한요목사 베델한인교회

국 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에 미국 을 방문한 후 대북 정책에 대해 의 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파 괴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북한을 잡 기 위해 미국 등 강경파들이 군사 적 옵션을 계속 운운하지만, '평양 의 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하 드 파워(군사력)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즉 한류를 불어 넣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동유럽이 미국의 군 사적 공격에 망한 것이 아니라 사 상 문화적 침투로 망한 것처럼, 대 북 정책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 다. 지난 3일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 중 "제국주의의 문화 사 상 침투를 저지 파탄시키자"가 있 었습니다. 이를 언급하면서 북한 은 한 번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 로 체제 붕괴를 염려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문화 사상 침투'를 걱정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지만 인내하면서 계속 소프트 파워로 공략한다면 결국 북한은 정 권이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는 태영 호 전 공사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 습니다.

결국 핵보다, 대륙간탄도 미사 일보다 더 위력 있는 소프트 파워 의 전략을 영적으로도 적용해 보 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드 파 워보다는 소프트 파워가 더 영향력 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부정 적인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세속적인 소프트 파워에 압도당하 고 있는 이때에 재미있고 건전한 복음적 소프트 파워의 개발이 시급 할 것 같습니다. 수준 있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널리 보급하는 일 과 스마트폰으로 친근하게 자녀들 에게 다가가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콘텐츠들이 장려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창의력 있는 기독교 작가들 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 국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파 괴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 이기 때문입니다.

####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 1. 부 목사님(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할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 2.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님(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 3. 찬양 리더(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 서류 마감 : 2017년 11월 30일(목) 까지 2.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Email: lalkcyoon@gmail.com lkc0085@sbcglobal.net

####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식

#### 감사가 없는 다람쥐

내가 사는 집 뒷마당 큰 나무에 다람쥐 두 마리가 산다. 그 다람쥐 들은 늘 집 주위를 맴돌며 먹을 것 을 찾는다. 그러다가 무언가 찾으 면 그것을 입에 물고 빠른 걸음으 로 달아나곤 한다. 또한 날씨가 추 울 때에는 뒷마당에 있는 통 속으 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 그러다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추운 날씨에도 나무로 도망을 하고 만다.

그런데 하루는 다람쥐가 남이 아 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 서 살고, 우리 집에서 먹으며, 우리 집에서 논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 는 집을 나보다 더 즐기며 사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다람쥐들과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맞대 본 적도 없고, 말을 해 본 적도 없으며, 고마우니 내가 높은 나무에서 따 가지고 온 도토리를 한 번 먹어 보겠냐고 한 적도 없다. 가만히 생각하니 섭섭 하기도 하다.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 구보다도 가까울 수도 있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을 생각 해 본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욱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김성민목사 팰리세이드교회

가 무엇일까? 그렇게 많은 것을 주 셔서 누리게 하시는데도 늘 "하나 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의 입 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나 의 것이라는 생각은 아닐까? 하나 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그러고 생각을 하

니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모 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머리를 숙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 지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 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 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

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 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다"(시편 50편 13-15절)라고 말씀 하신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답은 "모든 것"이다. 생명 주신 것, 세 상에서도 행복한 길을 열어주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 냉정하게 보이는 다람쥐와 같 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 는 삶을 산다면 방황도 괴로움도 모두 이길 수 있다.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쥐어짜듯이 생각해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가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이다.

내가 냉정한 다람쥐를 보며 섭섭 해 하지 않고 이해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하신다. 하지만 다람쥐와 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 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 나게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 마땅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서 허락하시는 복에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 신학 공부를 위한 최적의 가이드 신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너무 늦게 나와 아쉬운 책

이 책은 신학이 무엇이고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그려지는 '신학 공부의 가이드'라 해도 무방할 것이 다. 그러나 단순한 안내서 수준이 아니다. 신학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 하게 꿰뚫는 통찰력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단권이 아닌 총 3권으로 계획된 시리즈다. 첫 책이 출간됐으 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모두 3권으로 출간될 것이다. 1권(본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썼으니, 2권에 서는 성자 하나님, 3권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1권을 읽으면서 2, 3권은 어떻게 펼 쳐질지 무척 호기심이 작동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책은 약 간 독특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저자 는 책의 목적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 앙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조 직신학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형식 (13쪽)'이라고 했다. 저자의 의도대 로라면, 이 책은 실존적 대안으로서 신학 공부의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글은 월간지〈목회와 신학〉속 '질 문으로 푸는 조직신학'이란 제목으 로 연재된 것이 기초이지만, 원글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책이 라 봐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 으로 책 소개로 들어가 보자.

먼저 목차를 따라가 보자. 3부 11 장으로 나누었다. 1부에서는 '신학의 정의와 자료'란 제목으로 신학공부에 대한 기초 담론을 채웠다. 2부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의 신학으로, '신론'을 다룬다. 마지막 3부는 '하나님과 세계'라는 제목으로창조, 섭리, 신정론을 다룬다.

1부는 3장으로 이루어진 신학 공부의 서론에 해당된다. 1장에서는 신학의 필요성을 논한다. 2장에서는 신학의 기반, 또는 방법론을 다룬다. 3장은 성경에 대해 다룬다.

1장으로 들어가 보자. 신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엄밀하게 신학 공부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의학에 대해 몰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학은 복잡한 어떤 체계나 철학적 사변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의 본질적정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교회되게하는 실천적 지식에 가깝다(28쪽)'고할 수 있다.

저자의 정의에 의하면 신학은 신 (神)에 관한 포괄적 공부이기 때문 에, 총체적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 미에서 신학은 신앙생활 전반을 말 하고, 좁은 의미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신학'이 된다. 신학을 하 면 신앙을 잃는다는 오해(31쪽), 신



신학 공부 김진혁 l 예책 292쪽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35쪽) 등도 답한다.

2장에서는 신학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책, 이성, 전통과의 상관성을 다룬다. 3장에서는 성경의 형성과 외경, 성경의 영감론 등을 다룬다.

필자의 큰 공감을 일으킨 부분은 3장의 맺음말이었다. 저자는 '공동체의 책으로서 성서의 재발견(86쪽)'이란 제목으로 성서의 본래 의도인 '듣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초대교회 성경은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교인들은 듣는 구조의 당독용 말씀이었다. 이것은 현대의 홀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나 개인 묵상 등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혼자 읽기는 공동체성을 잃게 하는 데도 한몫 했고, '부적화 현상(88쪽)'으로 인해 건전한 신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것보다 봉독하거나, 교독하여 눈이 아닌 귀로 읽는 성경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2부 '신론'과 3부 '하나님과 세계'에서는 신론을 연구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2부 첫 장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한다. 현재 신론은 신학의 중요한 이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비록 신학적 순서로는 옳지 않겠지만, 3장을 읽고 2장을 읽는 것도좋아 보인다.

3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통 치로서의 신정론을 다룬다. 세월호 사건 이후 신정론은 신학에 있어 대 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최근 재판된 기타모리 가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나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 리신 하나님〉 등이 다시 주목을 받 는 이유는, 기존 신정론이 한계를 보 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신정론을 3장으로 세분화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룬다. 필자는 신정론 세 번째 부분을 유심 히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진 이 부분은 기타모리 가 조가 말했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시작된 '신정 론'은 철학적 사변으로서 신에 가 깝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 정론의 기저에는 모든 것을 이성 으로 분석하려는 근대정신이 존재 한다. 저자는 이것을 '신은 타자로 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족적 존재라는 독특한 철학적 전제가 깔 려 있다(248쪽)'고 말한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249쪽)' 로 부른다.

이러한 서술의 문제는 신을 궁극적 원동자 개념으로 왜곡시키고 축소시킨다는데 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신은 아닌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적 모습으로 종종 표현한다. 신약의 예수님도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즉 괴로워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심지어 그 아픔의 무게를 함께 지시는 분(252쪽)'으로 소개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하실 수 있는가이다. 저자는 예리하게 '결국 삼위일체론 적이고 기독론적 시각에서 성서를 읽어갈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253쪽)'고 말한다.

이 책은 마치 이제 목회의 뒤안 길로 돌아서는 원로 목사님과 신학을 이제 시작하려는 신학생들과의 대담같은 책이다. 난해한 신학적 지식을 다루기에 앞서 신학이 무엇이며, 신학의 종류와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 준다. 이 책은 앞으로 깊이 신학의 길을 가려는 신학도들에게 지도와 같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될 것이다.

요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십 년 전 나의 손에 이 책 이 들려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까? 이제라도 나와 고맙고, 너무나 늦게 나와 아쉬운 책이다.

>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개혁과 건설에 온 삶을 건 십자가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

#### 한국인이 바라본 루터의 모습



처음 만나는 루터 우병훈 I IVP 320쪽

"루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나 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는 루터 의 확신은 옳았고 하나님은 교회 개 혁을 위해, 또한 교회 건설을 위해 그의 믿음과 삶을 쓰셨다."

'개혁과 건설에 온 삶을 건 십자가의 신학자'로서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례적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마르틴 루터 연구첫 번째 프로젝트로 삼았다. "개신교를 그 근원부터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신학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루터의 메시지 강조점이 시간에 따라 달라져 후일 '일관성 결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단견(短 見)"이라며 "루터의 전기 신학과 후 기 신학의 강조점이 일부 다른 것은 그의 비일관성을 드러낸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그의 긴장 과 열심을 보여준다고 보는 편이 낫 다"고 반박한다. 그는 "루터는 일관 성 추구를 신학의 최고 목적을 삼 지 않았고, 교회를 위한 성경적 신 학을 붙잡고자 했을 뿐"이라며 "교 회를 개혁하면서도 건설하고자 하 다 보니 때때로 자기모순적 상황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조차 루터 는 성경과 신학에 분명한 근거를 두 어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했다" 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과 수도사

시절을 훑은 후 교회의 비판자, 이단 자와 자유자, 급진적이며 보수적인, 종교개혁의 지도자, 교회의 보호자, 시련과 확장, 비난과 오해, 루터가 남긴 것 등의 키워드로 그의 사역들 을 꼭 필요한 만큼 정리하고 있다.

95개조 논제에 대해선 중요 내용들을 직접 실으면서 "루터가 아직까지도 로마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교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동시에 루터가 당시교회를 성경과 복음의 진리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 주고, 무엇보다 루터의비판은 회개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이해와 상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시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루터의 이슬람과 유대인에 대한 견해도 가감 없이 담아내면서 오해에 답한다. 미로슬라브 볼 프가〈알라〉에서 "루터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알라를 동일한 신으로 생각했다"고 한 주장에 "루터는 그리스도의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알라를 분명하게 구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장 비난받는 유대인을 향한 태도에 대해선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심지어 그들을 향한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결코 옹호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루터의 생각은 중세에 유대인들을 향해 만연했던 편견이 반영된 것이고, 1523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글에서 보여주듯 유대인에 대해 회유적이었다"고 말한다. 또 "그렇다 해서 나치주의자들이 그를 이용한 것은 루터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고 루터의 사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책을 정리하면서 루터에 대해 "중세의 왜곡된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로 극복하고 교회와 사회의 개혁자가 됐다"고말한다. 책 제목처럼 올해 관련 도서들 중 루터 입문서로 가장 적합하다. 이 책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 2017년 10월 31일 나왔다.

이대웅 기자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mark>구입</mark>: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www.alexkimntrading.com

323,737,5900 대표전화 David Kim 213,703,7077

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미국⟨......) 한국₩

7 Days 24 Hours T.(213)400-6363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무료배딜

626-731-7864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삼성이





하면 다릅니디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7)580-2424

## 프링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우울증 치질(항문하혈, 통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만성두통, 요통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서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중성 7.0

9.0

셀라케어 10

알카리성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del>높습</del>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재





야곱의 우물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2)

## 갈 수 없는 땅들(2) 세겜, 사마리아, 도단

#### 세겜(Shechem)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9km 지 점에 떨어진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삿9:7)에 있다. 아랍인들은 이곳을 나블루스(Nablus)라고 한 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으 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여 호수아의 유적비도 만날 수 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처 음으로 멈춘 곳(창12:6)이며 야곱 이 밧단 아람에서 귀환하던 중 세 겜 성 앞에서 장막을 쳤고 단을 쌓 은 곳(창33:18, 19, 34:2)이다. 도피 성 중의 하나였다(수17:7). 북쪽 지 파들이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여 분열 왕조를 만든 곳(왕상 12:1-19, 대하 10장)이기도 하다.

세겜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 게 언급된 도시인데 오늘날은 팔레 스타인 자치도시가 되었기에 우리 가 갈 수 없는 땅 중에 하나가 되었 다. 이곳을 가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 여야 한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세겜의 양쪽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 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도시로 이 루어져 있다.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영 화를 누린 적도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야곱의 우 물이 그리스정교회 안에 지금도 존 재하고 있고(이곳이 수가성이며 예 수님이 여인을 만나 생명의 물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던 곳이다.

요셉의 무덤은 2000년 9월에 벌 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투 쟁 사이에 완전히 부서져서 지금은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다. 그리심 산 정상에는 고대 성벽의 모습이 남아 있고 주변에는 약 500명의 사마리 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신봉 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살고 있다.

#### 사마리아(Samaria)

사마리아는 "살핀다"의 뜻을 가 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지점으로 사마리아 도와 사 마리아 성이 있다.

사마리아 성은 세겜 북방 11km 지점 91m 높이의 언덕 위에 있는 데 현재는 '세바스티안'이라는 곳 으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보 잘 것 없는 동네가 되었다. BC 30년 에 헤롯이 사마리아 대건설 계획에 착수했다. 새로 건설된 도시를 황제 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세바 스티안'으로 명하였다. 도시의 출입 문은 서편과 동편에 있었다. 북편과 남편에도 성문이 하나씩 더 있었던 것 같다.

로마 시대의 극장 모습이나 카르 도 등 로마 시대의 유적이 조금 남 아 있지만, 지금은 낙후된 아랍인의 마을에 불과하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에 의해 상아궁이 세워졌고,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 렸던 역사도 있다.

BC 722년 앗 시리아에 의해 무너지고 이 지역은 혼혈이 되었다. 후에 헬라의 알렉산 더에 의해 재 차 혼혈이 됨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으로써 유대인 이스라엘선교회 들은 사마리아

인들을 멸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가려면 이곳 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평야로 돌 아 다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갈릴 리로 이동할 때 역시 같은 코스를 이용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한 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 와서 교회가 설립되는 기초가 서게 된다.(행8:1)



도단은 "누운 물"이라는 뜻을 가 진 곳으로 유대 산악지대 북쪽 끝 자락에 위치하며 넓은 평야를 이루 고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텔 도단의 모습

곳이기도 하다.(창37:17-36) 엘리 사의 거주지가 되기도 하였다.(왕 하6:13-19) 도단 역시 팔레스타 인 지역으로 목화밭과 밀밭이 넓 게 펼쳐진 평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남북 을 이어주는 족장도로가 지나가고 (브엘세바-헤브론-베들레헴-예 루살렘-세겜-사마리아-도단-이 스르엘 평야) 동쪽 길르앗 지방(지 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에서 도단 을 지나 지중해 해안 길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이집트까지 가는 해변 고속도로가 있다. 그래서 요셉 은 이곳을 지나가는 대상에서 팔려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곳 은 지나면 제닌(Genin)이라는 도시 를 거쳐 이스라엘 지역인 이즈르엘 평원(Jezreel Plain)으로 나가게 된 다. 조만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평화를 이루게 되면 이 지역을 마음 놓고 답사할 수 있는 날이 오 리라 믿는다.

〈계속〉









####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कि (ग्रामन्त्र)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213-272-6031

12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231121 7/2/011 ひんち 全てけるないてト! 물샘 선교회 선옥 선교사 11월 27(월)-29(수) 오후 7시 30분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인교회에 주는 메시지 기념 포럼에서 민종기, 정성욱, 권연경, 이상명 박사 발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이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종교개혁이 미주 한인 이 민교회에 주는 현재적이고 실제적 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해 한 인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발 판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 다. 4시간에 걸쳐 4명의 발제, 3명 의 논찬,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 됐다. 이번 포럼에는 미주에서 내 로라하는 한인 신학자들이 한자리 에 모여 그 시작 전부터 화제가 되 기도 했다.

먼저 기독교 윤리학자 민종기 박 사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 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이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민 박사는 이민교회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다 양한 저술 활동과 연구로, 상아탑 의 기독교 유리가 아니라 목회 현 장의 기독교 윤리를 조명해 온 인 물이다. 조직신학자 정성욱 박사 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 라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을 주 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덴버신 학교 교수이며 난해한 기독교 교리 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탁월한 은사와 함께 기독교 변증에서도 탄 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저술 가다. 신약학자 권연경 박사는 〈종 교개혁 500주년과 현대 교회의 위 기 진단과 해결 모색〉에 관해 발제 했다. 그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향해 진보적인 개혁 목소리를 내 왔다. 현재는 안식년을 맞아 풀러신학교

에 교환교수로 와 있다. 신약학자 이상명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박사 는 현재 미주장신대 총장이며 기 독교적 시각에서 환경 문제, 생명 윤리, 인공지능 등의 사회적 문제 를 읽어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을 제시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 왔

논찬은 이승현 박사(ITS 총장, 구약학),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 회 담임, 기독교교육학) 송인서 박 사(미주장신대, 역사신학)가 맡았

발제자들은 각각 Ph.D. 학위를, 민종기 박사는 풀러신학교, 정성 욱 박사는 옥스포드대학교, 권연 경 박사는 런던대학교, 이상명 박 사는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취득 했다. 논찬자의 경우는 이승현 박 사와 고태형 박사가 Union-PSCE 에서, 송인서 박사가 프린스톤신 학교에서 각각 Ph.D. 학위를 받았 다.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자 노력했으나 참여자 7명 모두 남 성이었으며 특히 논찬자는 모두 PCUSA 계열 학교 출신이었다. 보 수 침례교 배경의 신학교인 덴버 신학교의 교수 정성욱 박사를 제 외하면 모두 장로교 배경이었으며 이 역시 KAPC 소속 민종기 박사 를 제외하면 모두 신학적 성향이 비슷한 PCUSA 혹은 KPCA, 예장 통합 등 관련 목회자였다. 대다수 한인 1세였으며 이승현 박사만 1.5 세, 즉 다음세대에 속했다.

교회 위한 교회 아닌. 세상 위한, 세상 향한 교회 되어야

먼저 민 종기 박사 는 〈디아스 포라 이민 교회의 현 재적 진단〉 이란 발제 에서 "미국 경기의 위 축으로 이



민종기 박사

민자가 줄고 있는 데다 교회의 부 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며 한인교회 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민교회는 중세말의 타락한 사회에 새로운 충 격과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 였던 개혁교회의 역할을 돌아볼 필 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민 박사는 "한인교회는 성도들 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수적으로 질적 으로 성장해 왔을 뿐 아니라 후세 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분투하며 선교적 사명까지 감당하기 위해 부 지런히 투자하고 있다"고 칭찬했 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 박사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체 문제, 교역자와 당 회 갈등, 교인 수평이동, 60여 개 한 인 신학교 난립과 신학 교육의 질 적 저하, 신학의 보수성과 공적 신 앙에 대한 결여 등 수많은 문제를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안으로 개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영성 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자의식을 회복하고 공적 신앙을 통한 신학적 반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민 박 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적 영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칼빈 역시 종교개혁을 사회개혁과 연결 지었 는데 작금의 한인교회는 공적인 영 성을 진작시키는 데에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 무엇보다 자기 교회의 생 존과 발전에만 몰입해 있기에 연합 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교계 전체가 냉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명, 즉 세상 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하게 했다.

민 박사는 특히 성도들의 공동체 로서, 교회를 담임목회자가 세습하 거나 당회가 사유화하는 것, 특정 한 파벌이 교회 의사결정을 주도하 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월권이라 고 비판했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 의 목적을 이루는 공영체이기 때문 에 목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물 론, 성도들의 소유도 될 수 없다. 단 지 지도자에게는 운영권이 부여되 어 있고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함께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영체"라고 설명했다. 민 박사는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민교회는 지금의 개교회적 상황 속에서 공동운명체, 공동운영체, 공익체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회는 공적 기관이기 때 문에 사회를 향해서도 공적 신앙 의 의무를 지닌다. 민 박사는 "성 도의 사역은 교회 안과 밖을 포괄 한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이 해와 자비를 잃지 않고 있음을 보 여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 앙 운동이 교회 운동에 한정된 것 이 아니라 세계관 운동이었고 새로 운 세계관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넘어 세상 에 넘치도록 하는 천국 운동을 하 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목회 자는 성도들이 각자 삶의 분야에 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 민 박사 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세계 속 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 가는 방법은 역시 십자가"라는 말 도 잊지 않았다.

종교개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

이어 정 성욱 박사 는 (이민교 회의 미래 적 전망〉에 서 "종교개 혁이 회복 한 복음은 현재 이민 교회에 여



정성욱 박사

러 가지 근본적 도전을 던진다"고 힘주어 설명했다. 그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크게 7가지로 제시하며 그 것이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설명했다.

첫째, '오직 성경'의 원리는 성경 만이 절대 진리라는 원리이다. 그 러나 정 박사는 "이민교회는 하나 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침묵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 하며 "성경에 대한 깊고 넓고 풍성 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자 신의 신앙과 삶을 균형 있게 정돈 하며 살아가는 지도자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말했다. 그 는 그 원인을 설교에서 찾았다. 정 박사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말씀 의 본뜻을 드러내 주는 주해와 강 해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 의 목회공학적 의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예화 설교가 중심이 되어 가 고 있다. 이것은 이민교회 내 말씀 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다"면서 "이런 중에 비진리와 이단의 세력 이 이민교회 내에 서서히, 그러면 서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 리이다. 그는 "모든 종교가 절대진 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며,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 르친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 고 있다"면서 "이민교회는 예수 그 끝으로 민 박사는 교회를 향해 리스도의 유일성, 독특성, 절대성 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오 직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젊 은 세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이 열리던 모습

##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미성대학

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Tel. 213-507-1933



미성대학교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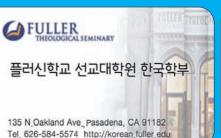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T (213)386-030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 Div), 선교학 박사 (D 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신학자와 교계 지도자들

### 미주 한인교회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셋째, '오직 은혜'의 원리이다. 그 는 "이민교회 내에는 아직도 이 은 혜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자격, 업적, 실력, 공 로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제자훈련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를 위협했던 율법주의적 다른 복음이 이민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넷째, '오직 믿음'의 원리에 대해 서도 강조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한인교회에는 은혜의 원리를 거부 하는 율법주의나 오직 믿음을 거 부하는 방종주의적 복음이 침투 해 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은혜 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거룩한 순 종과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 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음의 조건 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열매요, 결과요, 증거 요, 목적이라는 성경적 진리가 반 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마르 틴 루터도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 를 잉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원리다. 정 박사는 "만일 우리가 단 1%라도 우리의 구원받음에 공 헌하고 기여한다면, 우리는 자랑 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따라서 모

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 다"면서 "오늘날 이민교회에는 삼 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특정 한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특정한 교회나 단체를 높이고, 특정한 프 로그램을 높이는 인간주의적인 풍 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악한 풍 조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돌리는 신본주의적 풍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정 박사는 여섯째를 루터의 거 지의 영성, 일곱째를 칼빈의 무명 의 영성을 꼽았다. 정 박사는 "루 터는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 지막으로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 것은 진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 겼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 생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거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 했다.

정 박사는 "오늘날 우리 이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배불러 버린 것이 아닌 가? 그래서 주님도 멀리하고, 주님 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사라진 영 적 비만 환자가 되어 버린 것은 아 닌가"라고 꼬집었다. 루터가 거지 의 영성이라면 칼빈은 무명의 영 성이다. 정 박사는 "칼빈은 '내가 죽으면 내 묘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은 하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 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높여 지는 것을 거부했음을 뜻한다"고 했다.

> 끝으로 정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던지는 7가지 도전 앞 에 우리는 겸허히 참회해야 한다. 이 거룩한 회개의 운동으로 여러

분을 초대한다"고 했다.

####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권 연 경 박사는 〈현 대 교회의 위기 진단 과 해결 모 색〉을 주제 로 발제했 다. 그가 정 리한 한국

교회 위기



권연경 박사

의 징후는 크게 5가지다. 중대형 교회 담임목회직 세습으로 대변 되는 돈을 향한 욕망, 초월을 향 한 열망을 세속적 욕망으로 대체 한 번영복음, 목회자의 제왕적 리 더십이나 종교적 영웅 숭배, 목회 자의 성범죄, 무조건 믿는 맹신자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목회자 와 성도의 사명에 대한 재정립을 요청했다. 권 박사는 에베소서 4 장의 말씀을 들어 "사도, 선지자, 목사 및 교사와 같은 역할은 하나 님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다. 이들은 성도들을 온 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 운을 뗐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의 지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 이 해야 한다. 권 박사는 "감독이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역할 은 철두철미 선수들의 몫으로 남 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결론적 으로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가 성

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그는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 을 위한 빛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 는 주변의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서 "도덕적 삶이 제자 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 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선한 행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 장 핵심적 자질 중 하나가 된다. 세 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자의 삶은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연습경기가 아니다. 맛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그래 서 심판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제자를 향한 소금의 비 유는 '그러니 맛을 잃지 않도록 조 심하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 박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숙 고하며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려는 열정, 그 복음적 원리 위에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땀 흘림,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 회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이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또 "이런 역사적 과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의 본질 회 복을 위해,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길 바 라다"고했다.

#### 시대 읽어낸 종교개혁 정신 오늘날 더욱 절실

이 상 명 박사는 〈4 차 산업혁 명이 가져 올 미래사 회〉를 주 제로 발제 했다. 이 박 사는 "최근

전 세계 여



이상명 박사

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 한 변화와 발전에 현기증이 일 정 도"라면서 "우리는 이제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사 회에서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경 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IT 기반 위에 물리학과 생 물학이 융합해 만들어 내는 여러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 생활 곳곳 에 파고들어 개인 라이프 패턴, 가 치관, 세계관, 영성, 사회구조와 세 계질서를 깊고 광범위하게 바꾸 어 놓을 것이다. 이런 격변기에 종 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박사가 교회에 주문한 한 가 지는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 박 사에 따르면, 교회는 세계사적 변 혁기마다 시대정신과 시대변화를 읽고 대처해 왔다. 플라톤 철학을

교부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 학을 스콜라 철학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종교개혁으로 수용해 낸 것이다. 그러나 다윈 이후 교회 는 진화생물학의 거센 도전에 대 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젊 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 박사 는 "21세기 개신교회는 4차 산업 혁명을 추동하는 과학기술혁명과 파생될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 해하고 받아들일지 준비해야 한 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구축될 미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 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이 축복 을 잉태할 것인지 혹은 저주의 재 를 뿌릴 것인지에 대해 섣부른 판 단보다는 과학기술을 맹신한다든 지 낡은 종교관의 잣대로 그것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태도를 경계 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 회는 과학에 내재된 물질적 욕망 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사회 와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는 "인문주의적 방법과 성경적 가 르침에 근거하여 시대 흐름을 제 대로 읽고 로마가톨릭교회의 낡 고 부패한 권위에 도전한 종교개 혁자들의 의식과 실천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는 교 회 현장에서 다시 꽃피우기를 바 란다"고 기대했다.

이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이 교회 에 던지는 질문으로는 신의 존재 와 가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 해를 꼽으며 "신은 과연 필요한 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생 명의 정의인가, 신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등 을 예시했다. 초지능성, 초연결성, 영속성 등 신적 영역에 속한 것들 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 등을 통해 우리 삶에 펼 쳐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 은 기독교를 향해 위와 같은 질문 을 던질 것이다. 이 박사는 "이런 질문에 교회가 제대로 답을 제공 하지 못하면 다음세대의 교회 이 탈은 급속히 이뤄질 것"이라 경고

이 박사는 "500년 종교개혁 당 시 유럽도 엄청난 격변의 현장이 었는데 이제 교회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전대미문의 초과학적 역 습 앞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학자들은 하 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나님의 존재와 역할, 인간 삶의 의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각 미에 대한 신학적 답변과 미래사 회에 맞는 영성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혁명이 심화되면 될수록 고갈될 영성의 문제는 결국 종교 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희망과 당부를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12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11월 1일)

####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S.EDU

#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The 10th 2018 World Educational Mission Conference

세우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인 선교사 들을 통하여 현재 전 세계에 44개의 기독 대학과 810개의 기독교 초 · 중 · 고등학교를 세워 세계 교육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 선교지 학교에서는 청년사역을 수행할 교사 · 교수와 행정요원이 부족합니다. 영어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 21세기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찾기 위해 첫 세계교육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18년 2월 1일(목) ~ 3일(토)
- 장소: 오전/오후 Fuller Seminary (Pasadena) 저녁 나성영락교회(LA)
- 주요 프로그램

오전 9시 /오후 5시 교육선교 특강, 학술 컨퍼런스, 선교지 학교소개, 맞춤형 선택특강

저녁 7시 세계교육선교 연합집회 - 전세계 교육선교를 향한 선교비전과 선교도전

- 참가대상
  - ▶해외 교육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 ▶해외 선교지 학교에서 봉사할 관심이 있는 전문인
  - ① 영어회화, 한국어교사,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② 상담, 영상, 홍보, 시설, 도서관, 의무실, 기숙사사감, 식당,산학협력, 비즈니스, 교무행정 등
  - ③ 전공강의 교수(석 · 박사)
  - ▶청년사역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기독청년
-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 신청 www.paua.kr (홈페이지의 우측상단 로고 클릭)
  - ▶대회 문의 (미국)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675.6493

사무총장 강성택 선교사 213.384.5232

paua.america@gmail.com

(한국) 070.7530.4967 paua\_global@gmail.com



손봉호 교수 PAUA법인 이사장



임현수 목사 큰빛교회 Toronto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California



박헌성 목사 나성열린문교회 Califonia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California



정인수 목사 직전 CCC 국제부총재



권오문 총장 몽골국제대학 몽골



구견회 총장 라이프대학 캄보디아



김진경 총장 연변과기대 중국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서울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평촌



한기채 목사 중앙성결교회 서울



최복이 대표 본죽 대표 특별간증



양춘길 목사 필그림교회 New Jersey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New York

